

대구주보

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사순 제5주일 2016.3.13.(다해) 제1989호



문경 여우목 성지 십자가의 길 <사진 : 대구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

† 오늘의 전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요한 8,7)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간음한 여자에 대한 단죄보다 먼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느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다른 이를 단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을 단죄하는 심판은 하느님께 맡기고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뉘 우칠 때, 예수님께서서는 결코 우리 죄를 묻지 않으시며 아낌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제1독서 이사 43,16-21

제2독서 필리 3,8-14

복음 요한 8,1-11.

입당송 하느님, 제 권리를 찾아 주소서. 불충한 백성에게 맞서 제 소송을 이끌어 주소서.
거짓되고 불의한 자에게서 저를 구해 주소서.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의 힘이시웁니다.

화답송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영성체송 여인아,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으리라.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사랑하지 않고는 안다고 말하지 말라

김상조 대건안드레아 신부 | 현풍본당 주임

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유고집 『거룩한 경청』 127쪽에 나오는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해보았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허물 까지도 덮어줍니다. 그가 가진 허물을 개의치 않게 됩니다. 일흔일곱 번의 용서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왜 갈등, 분열, 다툼, 증오, 미움, 공격, 음해, 모함이 있을까요? 사랑이,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하기 전에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요한 8,7)

그분의 이 말씀으로 이제 결백하고 고결한 사람, 죄 없는 사람, 걱정과 육욕이 없고 거룩하고 완벽하고 선한 사람, 의롭고 신심 깊은 사람,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까지 모두 하느님 법정에 불러나온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거룩하고 고결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무자비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차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습니다. 그분이 계속해서 땅바닥에 글을 쓰고 계시는 동안 모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분은 돌을 든 사람들에게 그 돌을 던지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만들어주셨습니다. 현명한 방법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차츰 알아차렸습니다. ‘암, 나는 거룩하지! 그런 사람이 무지막지하게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 안되고말고!’ 라며 발길을 돌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미 어느 정도 단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상쾌한 아침 햇살이 눈부신 가운데 이토록 밝은 날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한 쪽이 웅성거리더니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여인이 돌을 든 남자들 손에 무지막지하게 끌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부끄러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채 수치심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평화가 깨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가련한 여인을 보는 그분의 눈길에 연민이 가득합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찌 동정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분이 그 가녀린 얼굴과 배, 혹은 가슴과 등을 겨냥해서 무자비하게 돌을 던지는 것을 허락하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차마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이 단 둘만 남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어떤 것에도 메이지 않고 기쁘고 자유롭게 갈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날 아침 너무나 밝은 햇살에 차마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던 한 여인의 그 “많은 죄를 용서받은”(루카 7,47) 기쁨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죄에 잘 넘어가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사랑이 더 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음을 오늘 복음의 여인을 통해 우리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필로**

생명사랑나눔운동본부 연중 캠페인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가치 있습니다

신윤경 엘리사벳 원장 | 대구가톨릭여성회집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선포하신 “자비의 특별히년”은 자비 안에서 ‘가난한 사람을 위한 우선적 배려’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실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년을 맞아 세상의 고통, 비참에 대한 무관심을 반성하며,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의 얼굴인 우리가 과연 자비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맞이했는지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교황님은 자비의 히년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자비의 육체적, 영적활동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그 중 자비의 영적활동은 “의심하는 이들에게 조언하고, 모르는 이들에게 가르치며, 죄인들을 꾸짖고,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며, 우리를 모욕한 자들을 용서해주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인내로이 견디며, 산 이와 죽은 이들을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하여야(『자비의 얼굴』, 15항)” 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여기서 “상처받은 이들”은 우리 가정 안에서 인간 대 인간의 관계, 인격적 관계가 파괴된 자리에서 벌어지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 속’ 같이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가정에서의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가정은 가족 모두에게 삶을 살아가는 희망과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가족 간의 애정을 토대로 서로 의지하고 지탱해주는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 때리고 맞는 일이 예사로운 일처럼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가정의 ‘가족 길들이기’ 정도로 여겨지는데, 이는 가정폭력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하는 데에 크나큰 걸림돌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라보는 제삼자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 멀쩡한 사람이 자기의 아내를 때리고, 자식을 때리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피해자인 여성과 자녀가 ‘맞을 짓’을 했을 거라고 단정지어 버립니다. 피해자들의 이중고가 이런 데에 있습니다. 남의 일, 집안 일, 해결되지 않을 일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나의 일, 사회적 범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로 새롭게 인식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누구나 예외 없이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임을 깨닫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모든 음악, 악기 연주의 기초가 되는 계이름. 음악을 잘 모르는 어린아이도 쉽게 외웁니다. 오늘날 세계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이 계이름은 음 하나하나에 이름을 달아 누구든지 그 음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으로, 본래는 성직자와 수도자들이 매일 의무적으로 바치는 가톨릭 교회의 공적기도인 성무일도의 찬미가에서 유래합니다.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저녁기도의 찬미가 “세례자 요한이여 들어 주소서 / 위대한 당신 업적 기묘하오니 / 목소리 가다듬어 찬양하도록 / 때 묻은 우리 입술 씻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부분의 라틴어 “Ut Queant laxis / Resonare fibris / Mira gestorum / Famuli tuorum / Solve polluti / Labii reatum / Sancte joannes”에서 한음씩 순차적으로 높아지는 6개의 음에 해당하는 각 구절 첫 머리글자를 따서 ‘우트, 레, 미, 파, 솔,

라’라 붙였습니다. 그 후 우트는 t로 끝나는 발음상 어려움이 있기에 같은 의미로 하느님을 뜻하는 도미누스(Dominus)의 첫음절을 따서 ‘도’로 바뀌었으며, 17세기경 제7음 시(Si)가 더해져 지금의 계이름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도 프랑스 등 일부국가에서는 도 대신에 우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11세기 초 이 계이름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이탈리아 중북부 아레조 출신의 귀도(Guido d'Arezzo 990~1050년) 수사입니다.



계이름이 없던 당시에는 노래를 듣고 외우는 방식으로 성가를 불러 왔습니다. 아레조의 주교좌 대성당에서 성가대를 가르치던 베네딕토회 수사이자 작곡가였던 귀도는 성가대가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음을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레고리안 성가로 작곡된 요한 찬미가의 첫음절을 계이름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계이름을 토대로 오늘날의 5선 악보와 비슷한 4선 악보를 고안해 성가의 음을 보다 정확하게 기록하여 표현할 수 있는 기보법(記譜法)을 창안해냄으로써 오늘날 악보를 읽을 줄만 알면 누구나 쉽게 성가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부르는 노래지만 알고 보면 계이름은 그 자체로도 하느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필요**



열두 사도 이야기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요한 20,28) 부활신앙을 고백한 첫 제자, 토마스 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의심 많은 사도로 알려진 토마스 성인께서는 열두 사도 가운데 한 분이시지만 언제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르셨는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열두 사도의 명단에 포함되어 이름만 등장할 뿐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 복음에는 여러 차례 토마스 사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선 성인께서는 “쌍둥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한 11,16 ; 20,24 ; 21,2) 누구와 쌍둥이인지 아니면 왜 쌍둥이라는 별명을 가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죽은 라자로를 다시 살리려 벳타니아로 가려고 하실 때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요한 11,16)하고 말씀하시면서 굳은 신앙과 용기를 보이셨으며, 최후의 만찬 때에는 예수님께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여쭙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요한 14,6)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직접 뵈지 않고는 스승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고집하시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뵈고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요한 20,28)하고 고백하심으로써 부활신앙을 고백한 첫 번째 사도가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티베리아스 호숫가에 나타나셨을 때에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요한 21,1~2) 이런 정도가 성경을 통해 토마스 사도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께서는 인도에 가서 왕궁을 짓는 목수로 일하면서 선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사도는 건축가와 목수의 수호성인으로 공경 받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7개의 교회를 세우신 성인께서는 그곳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 후 성인의 유해는 에데사(오늘날의 터키 우르파)로 옮겨 모셔졌는데 6세기부터 이를 기념하는 축제가 7월 3일에 열려 교회는 이날을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1972년 바오로 6세 교황께서는 토마스 사도의 순교 1900주년을 기해 인도교회의 수호성인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토마스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의심을 품었던 생각을 버리고 하느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뜬 토마스 사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의심을 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필로**



카라바조, 「의심하는 성 토마스 사도」(1602년경), 포츠담 신궁전

교구장 동정

■ 2016년 대신학원 입학미사



2016년 대구관구 대신학원 입학미사가 3월 1일(화) 오전 11시 대신학원 대성당에서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사진제공 : 월간 <빛>

■ 제3회 교구 세계 여성의 날 행사



제3회 세계 여성의 날 미사가 3월 8일(화) 오후 3시 교구청 교육원 다동 대강당에서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영화 _ 프란치스코〉

교황청이 최초로 공식 인증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76년 일생을 그린 감동의 영화!
교황을 꿈꾸지 않았던 남미의 평범한 신부에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교황님이 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숨겨진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개봉됩니다.

개봉일 : 3월 10일(목)

개봉관 : 메가박스, CGV, 롯데시네마

- ▶ 자세한 상영시간 및 상영관은 영화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주보 지참시 1매당 1인 2천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전국상영관 2천 원 할인권(1인 1매)

- ▶ 본권은 〈프란치스코〉를 상영하는 전국극장에서 개봉일부터 2016년 3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본권 사용시 현장 매표소에서 계산 전 제시해 주십시오.(온라인, 모바일, 티켓판매기 사용불가)
- ▶ 본권은 성인 정상이 기준 유료발권시 사용가능하며, 오전 10시 이후, 심야 24시 이전 시간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본권은 일반(2D) 영화 발권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특별관, 특별좌석 제외)
- ▶ 본권은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본 권을 사용하여 교환한 티켓은 교환 및 환불할 수 없습니다. (극장 사정으로 영화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 ▶ 본권은 타 쿠폰 및 이벤트, 할인혜택 등과 중복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휴 할인카드 중복 사용가능)

⑥ 사순 제5주일



미사 안내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3월 14일(월) 10:30 범어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3월 14일(월) 11:00 월성성당
경주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3월 14일(월) 11:00 황성성당	포항지역 학교복음화미사	3월 14일(월) 19:00 4대리구청 회의실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3월 14일(월) 11:00 신평성당	구미지역 학교복음화미사	3월 16일(수) 19:30 신평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3월 14일(월) 11:00 죽도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3월 17일(목) 10:00 평화성당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3월 14일(월) 11:00 계산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3월 19일(토) 11:00 성모당

성소 | 피정

천주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3.19(토) 14:00

장소: 서울 개화동 수도원

주제: 수도회의 역사

문의: (010)3800-1579

베네딕도수녀회 성삼일 전례 피정

기간: 3.24(목) 15:30~27일(일) 14:00

장소: 베네딕도 영성관 / 피정비: 15만 원

문의: 313-3425 / (010)7103-3425

음성 꽃동네 사순 특별 피정

기간: 3.18(금) 16:00~20(일) 13:00

장소: 꽃동네 영성원 / 피정비: 12만 원

개인독방 대침묵 피정

(미사, 강의, 고해성사, 면담)

문의: (043)879-8500 / (010)8880-8286

성심교육관 2박 3일 무료 피정

기간: 3.18(금) 23:00~20(일) 15:00

장소: 성심교육관, (031)262-7600

출발: 시민회관 16:00

주최: 파티마의성모프란치스코수녀회

문의: 이카타리나, (010)4515-1114

수도자와 함께 청년 부활 전례 피정

기간: 3.25(금)~27(일) 2박 3일

장소: 토티포교베네딕도회 대구수녀원

문의: (010)8519-3431

(010)9347-3431

마리아 영성 피정(성체 헌시, 미사, 안수)

일시: 3.16(수) 13:00~16:30

4.20(수) 13:00~16:30

지도: 강요셉 신부

문의: 삼덕성당, 422-6691

교육 | 모집

오순절평화의마를 철야기도회

시간: 매주(화) 23:00~익일 4:00

버스운행: 현대미래몰 20:30

수성구청 앞 21:00

문의: 김명옥, (010)5529-3186

새빛학교 ABC영어, 한문반 모집

영어교실: 매주 화, 목 13:00(주 2회)

한문교실: 매주 화 15:00(주 1회)

문의: 교무실, 476-3100(1호선 교대역)

34차 이스라엘 성지순례

기간: 7.23(토)~31(일) 8박 9일

주관: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성지대표부

문의: (010)5607-2046

<http://www.terrasanta.kr>

19회 대학생 필리핀 영어연수·해외봉사

기간: 3차 3.26(토) 8주 이상

지역: 필리핀 바콜로드 대학부설 센터

내용: 주중영어연수, 주말해외봉사활동

기타: 호주,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가능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에밀 따케 신부의

왕벚나무 통합생태론 컨퍼런스

일시: 4.4(월) 14:00

장소: 남산동 신학대학 대강당

주최: 대가대사회적경제대학원,

(사)푸른평화 / 문의: (010)8216-7711

지역주민을 위한 관절염 순환교육(7차)

일시: 3.30(수) 14:00~15:30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T관 3층 데레스홀 / 문의: 650-4910

주제: 강직성 척추염

강사: 류마티스내과 최정운 교수

꽃등대
간가방사
자연환경전설

지하철 2호선 내당역 3번 출구
예약 **053)652-5432**
이태도 가브리엘, 윤영미 카타리나

U & I
유앤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역 5번 출구 (사월 방향 500m)
제임병원 옆
김경임 (아네스)

삼성화학건설

ISO9001 인증 방수공사 / 지붕개량 / 페인트칠

실내 인테리어 전문 / 주택, 아파트 리모델링
상업공간 인테리어 공사 / 빠른 견적 제공

대표번호 **1577-2279**

인테리어 빠른견적문의 053)284-0102 / 010-2060-0501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홈케어 무료서비스

무통전화 **080-053-1000**

이옥수(아네스) 010-5048-7739

라인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 원장 원 종 훈 (바오로)

입원입원 아토피|알레르기|사마귀|티눈|건선|무좀
피부미용 어드름|흉터|기미|잡티|모공|보톡스|필러|비만

대명동 한영유니온빌딩 3층 (구,달성군청)
1호선 삼당역 3번출구 T.053) 651-8800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 656-9911
010-2008-2329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장 효 원(요셉) 신부
TEL 053)615-4871

대한민국 한복명장
이명자 한복방

한복의 모든 것, 명장의 손으로

T. 053)421-2827~8
HP. 010-3826-2827

이명자(세실리아), 강윤정(아네스)

행사 | 모임

2016년도 예비신학교 입학 및 개학 미사

일시: 3.20(일) 14:00

장소: 남산동 대신학원 성당

대상: 1~5대리구 예비신학생

※ 부모님도 참석 가능하며,

미사 후 학년별, 지역별 모임 있습니다

2016 대구성령축제

일시: 4.16(토) 10:00~18:00

장소: 월막피정의집(대구성령봉사회관)

1일 치유대피정(이성억 타대오 신부)

일시: 3.19(토) 14:00~18:00(평리동)

문의: 대구성령봉사회, (054)954-0951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 개강 미사

경북대-빨마 3.17(목) 18:00 / 계명대-한

터 3.18(금) 18:30 / 대가대-가톨릭연합

3.17(목) 17:10(교목처성당) / 대구대-영남대

외 경산지역대학 3.20(일) 17:00(압량성당)

문의: 지용식 신부, (010)8692-5695

교육 | 모집

교구 청년교 엠마우스 리더십

일시: 4.24(일) 9:30~18:00

장소: 포교성베네딕도수녀원(공평동 본원)

대상: 만 19세 이상 청년(예비신자 가능)

문의: 심베네딕도, (010)9580-0083

노인 세미나

일시: 4.9(토) 14:00, 대신학원 대강당

주제: 고령화 현상과 노인사목의 방향

대상: 교구 내 모든 본당 1~2명

문의: 교구 노인사목담당, 250-3077

3월 가나 강좌

일시: 3.20(일) 10:00~17:30(시간엄수)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마리아관

참가비: 1인 2만 원(당일 접수) 무료주차

문의: 교구 가정담당, 250-3114

시편성가, 발성법 연수

일시: 3.13(일) 15:00 / 회비: 1만 원

지도: 김정선 수녀, 박재연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제13차 영남지역 CPE세미나

일시: 3.19(토) 9:30~16:00 / 3만 원

장소: 대신학원 대강당 / 마감: 3.15(화)

대상: 불안완화를 통한 자신과 영적돌봄

주최: 대구대교구·성바로CPE센터

문의: 659-3410 / (010)4143-5508

52차 선교대학

백만불짜리 감동선교

일시: 3.19(토) 10:30~16:00

장소: 계산문화관 / 선착순 100명

문의: 한국천주교가두선교단, 781-6100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가곡·성가, 통기타, 우쿨렐레, 플루트, 오

카리나, 바이올린, 성인생활영어회화,

성가반주법, 동화구연·시낭송지도자반,

천연비누·천연화장품, 텃생·유화·수채화

문의: 476-6211(지하철1호선 교대역)

3월 지성인을 위한 토요신앙특강

일시: 3.19(토) 10:00~12:00

장소: 대구가톨릭대 신학대학(남산동)

주제: 최선을 다하자

강사: 강길웅(세례자요한) 신부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채용 | 안내

하양성당 사무장 채용

자격: PC 능숙한 남자 사무장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본당신부 추천서

마감: 3.20(일) / 문의: 852-2715

내당성당 사무장 채용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문의: 558-4411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문정은, 권진석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대구가톨릭대병원 암장기이식센터 개관

2월말 개관, 3.7(월) 본격 진료개시

지하4층 / 지상4층 규모의 최신식 센터

암센터, 장기이식센터, 건강증진센터,

외래진료실, 해외의료사업팀으로 구성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경험해 보십시오

Rex Diamond
더렉스 대구갤러리

예물, 천연보석, 다이아몬드, 순금바
(목주반지 · 핸드메이드 디자인 가능)
대표 임 미 순(마리아)

♥ 교동쪽 동아백화점과 시청 사이 ♥
(동아주차 무료)

☎ 053)428-7989 | 010-4439-9991
교우님들께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제릭)
홍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성누가종합내과외과
(구.성누가의원)

위·대장내시경
건강검진센터(공단검진, 5대암)

원장 이관식(루까) · 원장 서영익(미카엘)

2호선 경대병원역 1번 출구 앞 2층
☎ 053)255-3134

백 합 식 품
샬트르성바로수녀회 대구관구

옛날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100% 국산품으로 만드는 우리의 참맛

수녀원 메주, 된장, 간장, 청국장, 대추즙

대구 053)257-1771
공장(자인) 053)857-2037
www.spcfood.co.kr

백두정형외과
www.baekduos.com

정형외과 전문의 백영두 아오스딩
배상근 베드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임형준
동인 치안센터 건너편 T. 425-5919

아개 무료 발목 관절경수술

NAVER 백두정형외과 검색

미소인치과

원장 이 중 현(프란치스코)
송 선 희(안나)

지하철 범여역 4번 출구

전화상담 053)752-7575 화·목
www.misoindental.com 아간진료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윤(안젤로)
송 경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www.piumclinic.co.kr

이애현 피움산부인과
원장 이애현(크리스티나)

부인과 검사, 갱년기 클리닉
레이저 여성 성형, 비만클리닉
보혈공단 자궁경부암검진, 요실금클리닉

상인역 2번출구 하나은행건물 7층 TEL. 053.421.7585